
I. 경영환경

- 2019년 말 주요 경기 하방위험이었던 미·중 무역분쟁이 완화되면서 세계 주요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있었으나,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세계 경기 둔화 및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양상임
 - 특히 세계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(PMI)는 중국을 중심으로 2020년 2월 크게 하락하는 등 제조업 경기가 다시 수축 국면에 들어섬

- 우리나라도 2019년 4/4분기에는 민간소비 및 투자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20년 2월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 둔화가 심화될 것으로 보임
 - 소비자심리지수 및 물가상승률 등 주요지표가 2020년 2월에 하락함
 - 주요 기관들은 2020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2019년에 비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

- 한국은행은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 둔화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의 영향으로 3월 17일 기준금리를 1.25%에서 0.75%로 인하함
 - 한국은행은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, 실물경제에 대한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 완화를 위해 기준금리 인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함

-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, 정부의 경기 부양책으로 인한 채권 발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장기물이 단기물에 비해 약세를 보이며, 장단기 스프레드와 신용스프레드가 확대됨
 - 신용평가사들의 기업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이어지고 있으며, 3월 신용스프레드(회사채 AA⁻국채 3년물)는 75bp까지 확대되어 2012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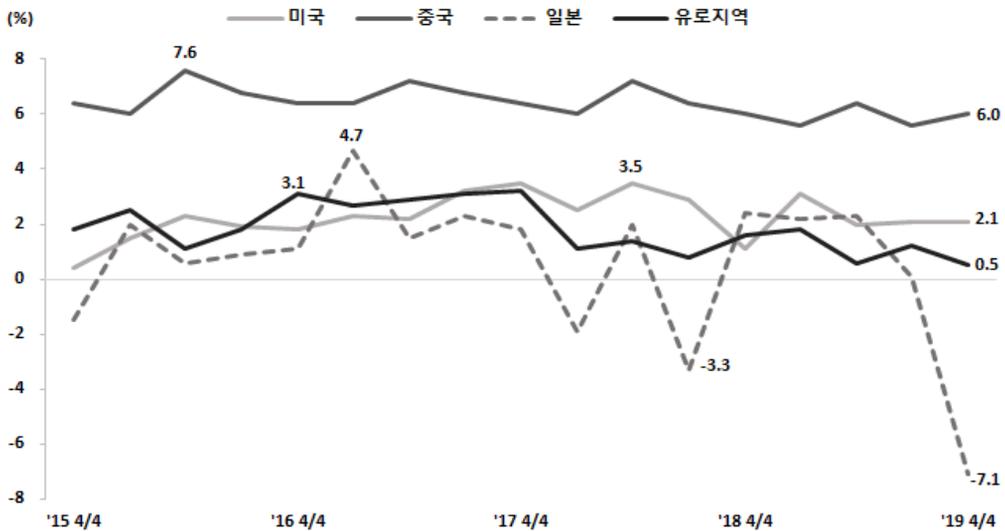
- 2019년 가계부문의 채권과 국내주식 거래는 감소한 반면 현금 및 예금 거래가 확대됨
 - 보험 및 연금 거래 비중은 2012년 79.7%로 최근 10년 내 최고점을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9년 38.8%를 기록함

1. 경제

가. 세계경제

- 2019년 4/4분기 주요국 성장률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며, 특히 일본은 -7.1%로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냄
 - 2019년 4/4분기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2.1%로, 전분기와 같은 수준을 기록하였고,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6.0%를 기록하며 전분기보다 0.4%p 상승함. 유로지역과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전분기에 비해 각각 0.7%p, 7.2%p 하락한 0.5%, -7.1%를 기록함
 - 일본의 4/4분기 경제성장률은 소비세 증세로 인한 민간소비 감소 및 태풍 피해 등으로 크게 하락함¹⁾

〈그림 1〉 주요국 경제성장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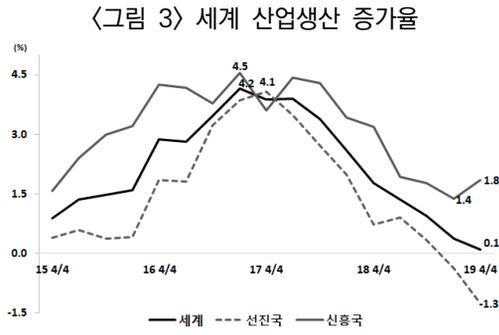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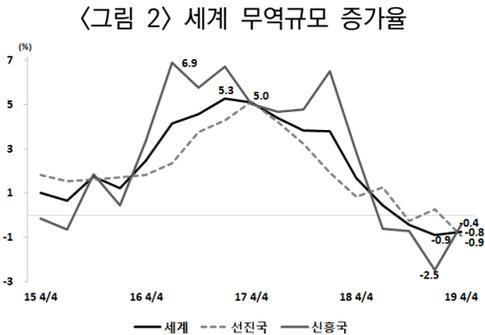
주: 연율화된 전분기 대비 증가율, 계절조정임

자료: Bureau of Economic Analysis(2020. 3); 중국 국가통계국(2020. 1); 일본 내각부(2020. 3); Eurostat(2020. 3)

- 2017년 3/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세계 무역규모와 산업생산 증가율이 2019년 4/4분기에 신흥국을 중심으로 반등함

1) 일본 내각부(<https://www.cao.go.jp>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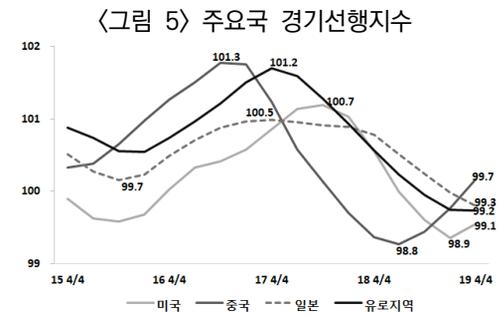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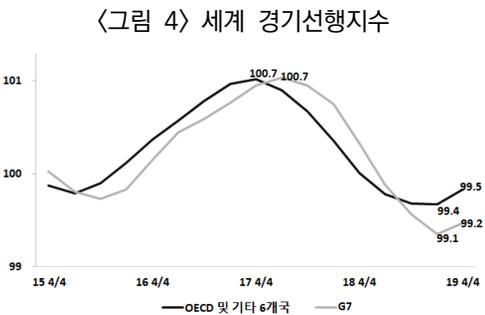
- 2019년 4/4분기 선진국 무역규모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1.2%p 하락한 -0.9%를 기록하였고, 신흥국 무역규모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2.1%p 증가한 -0.4%를 기록함
- 2019년 4/4분기 선진국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0.9%p 하락한 -1.3%를 기록하였고, 신흥국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0.4%p 증가하여 1.8%를 기록하며 반등함



주: 전년 동기 대비임
 자료: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(2020. 2)

■ 세계 경기선행지수²⁾는 2017년 4/4분기 이후 7분기 연속 하락세를 유지하다가 2019년 4/4분기에 반등함

- 2019년 4/4분기 G7의 경기선행지수는 99.2로 전분기보다 0.1 상승하였고, 미국과 중국은 각각 0.2, 0.4 상승한 99.1, 99.7을 기록함
- 한편 유로지역의 경기선행지수는 99.2로 전분기와 같은 수준을 기록하였고, 일본의 경기선행지수는 99.3을 기록하며 전분기보다 0.2 하락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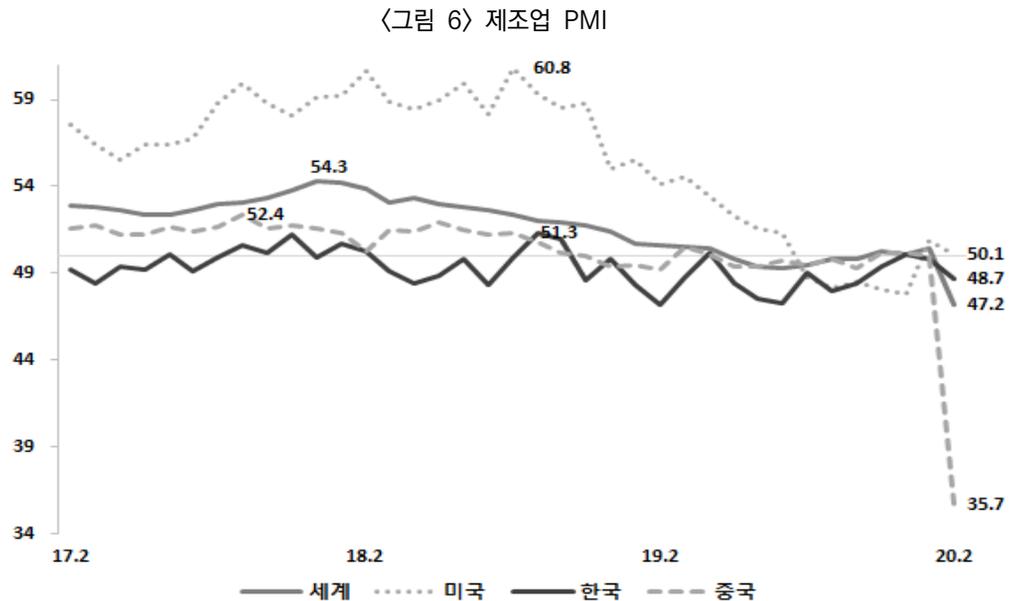


주: 1) 월간자료를 3개월 단순평균하여 산출함
 2) 기타 6개국은 브라질, 중국, 인도, 인도네시아, 러시아, 남아프리카공화국임
 자료: OECD

2) 경기흐름을 가늠하는 지표로, 100을 기준으로 지수가 올라가면 경기상승, 내려가면 경기하강을 의미함

■ 글로벌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(PMI)³⁾는 2019년 7월 최근 3년 내 최저치를 기록한 후 반등 하였으나 2020년 2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크게 감소함

○ 2020년 2월 글로벌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(PMI)는 전월 대비 3.2 하락한 47.2를 기록함
- 특히 중국의 경우, 2020년 2월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(PMI)가 전월 대비 14.3 하락한 35.7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수치(38.8)보다 낮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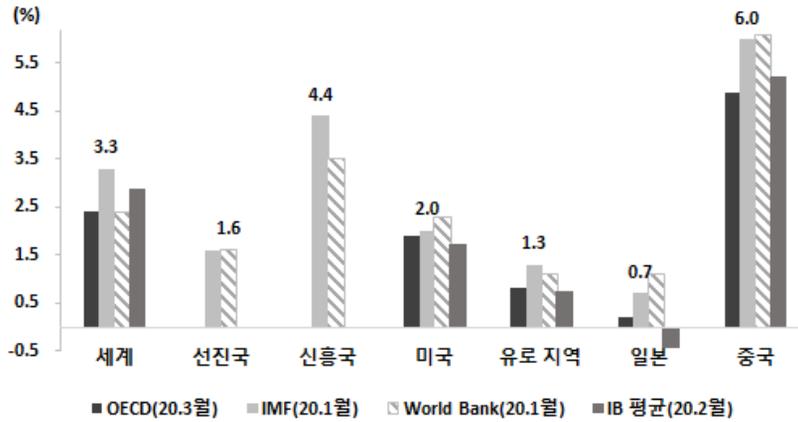
주: 전분기 대비, 3개월 이동평균임
자료: Bloomberg

■ 주요 기관들은 코로나19의 확산을 고려하여 2020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함
○ OECD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국 및 주요국 경기 부진으로 세계경제 성장세가 둔화 될 것으로 전망하며, 2020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.9%에서 2.4%로 하향 조정함⁴⁾

3) PMI(Purchasing Managers' Index)를 구성하는 요인은 생산, 신규주문, 수출주문, 취업, 부품구매, 주문잔고, 납품업체 배송, 재고 등 11개 항목임

4) OECD(2020. 3), *Interim Economic Assessment*

〈그림 7〉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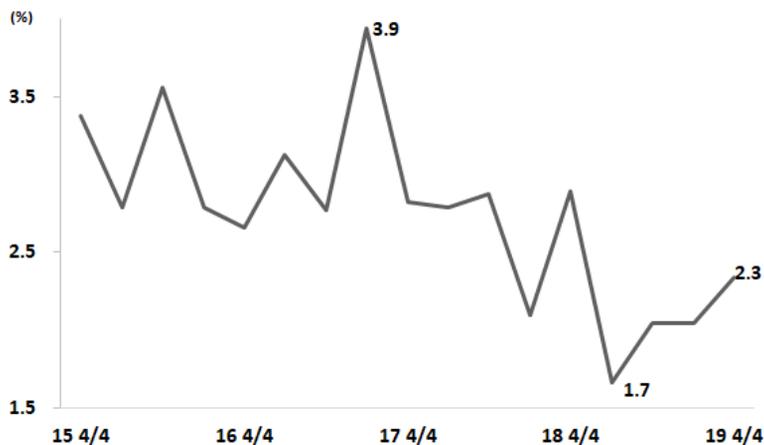
자료: IMF, OECD, World Bank, 4개 IB 평균임

나. 국내경제

■ 2019년 4/4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반등하는 모습을 보임

○ 민간소비 및 기계·건설수주의 증가가 2019년 4/4분기 전년 동기 대비 경제성장률 증가에 기여하여 전분기보다 0.3%p 상승한 2.3%를 기록함

〈그림 8〉 국내 경제성장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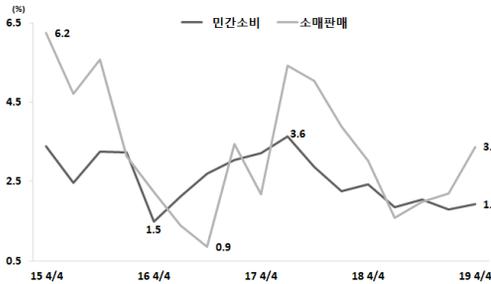


주: 원계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
 자료: 한국은행

■ 민간소비 및 소매판매 증가율과 소비자심리지수는 모두 2019년 4/4분기에 회복세를 보였으나,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비자심리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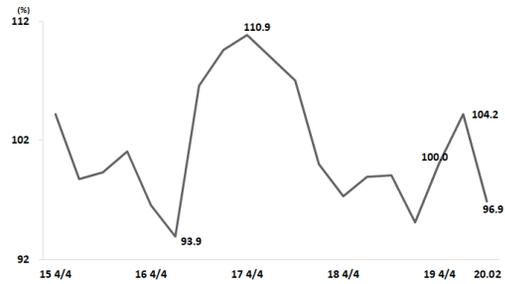
- 2019년 4/4분기 민간소비 증가율과 소매판매 증가율은 각각 1.9%, 3.4%를 기록함
- 2019년 4/4분기 소비자심리지수는 미·중 무역분쟁 완화조집 등의 영향으로⁵⁾ 전분기보다 4.9 상승한 100.0을 기록하였으나, 2020년 2월 중순부터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전월 대비 7.3 하락한 96.9를 기록함

〈그림 9〉 민간소비와 소매판매 증가율



주: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
자료: 한국은행; 통계청

〈그림 10〉 소비자심리지수



■ 2019년 4/4분기 들어 건설투자가 회복세를 보이고 기계수주와 건설수주가 증가하는 등 투자 부문의 회복 조짐이 나타남

- 2019년 4/4분기 건설투자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4.8%p 상승한 1.1%를 기록하였고, 설비투자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0.2%p 상승한 -2.5%를 기록하였으며, 지식생산물투자 증가율은 2.5%로 전분기와 같은 수준을 기록함
 - 건설투자 증가율은 비주거용 건축부문 및 일반토목부문 모두 증가하여⁶⁾ 상승함
- 2019년 4/4분기 기계수주 및 건설수주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각각 21.4%p, 19.1%p 상승하여 15.3%, 21.7%를 기록함
 - 기계수주 증가율은 12월 전자부품·컴퓨터·영상음향통신 등 민간부문과 공공운수업 등 공공부문이 모두 증가하면서 크게 증가함⁷⁾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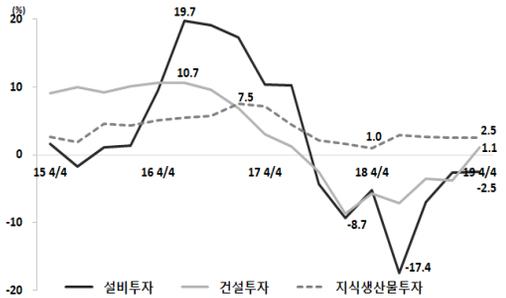
5) 국회예산정책처(2020. 2), 『NABO 경제·산업동향&이슈』

6) 통계청 보도자료(2020. 1), “2019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”

7) 통계청 보도자료(2020. 1), “2019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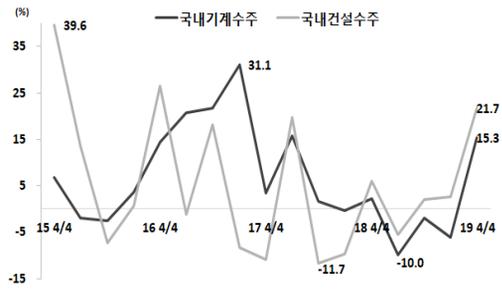
- 건설수주 증가율은 도로·교량 등 토목부문 및 주택 등 건축부문⁸⁾ 모두 크게 증가하여 상승함

〈그림 11〉 건설투자, 설비투자, 지식생산물투자 증가율



주: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
자료: 한국은행

〈그림 12〉 기계수주¹⁾, 건설수주²⁾ 증가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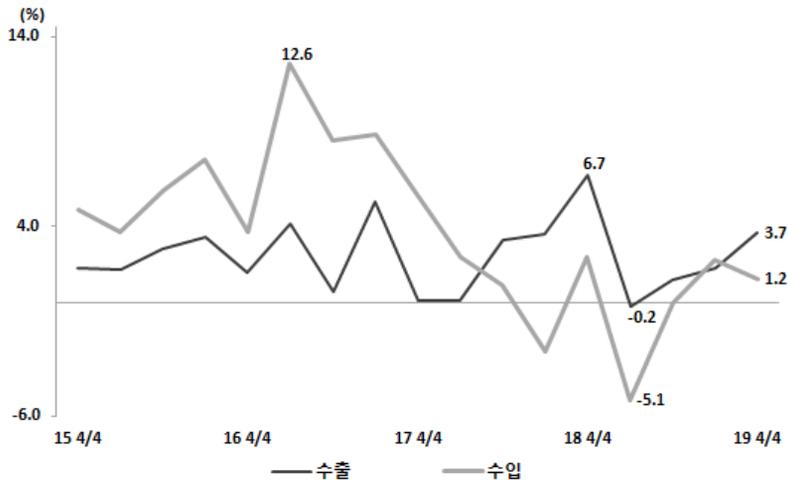


주: 1) 선박 제외함
2) 경상
자료: 통계청

■ 수출 증가율은 2019년 2/4분기 이후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수입 증가율은 하락함

○ 2019년 4/4분기 수출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1.9%p 상승하여 3.7%를 기록하였고, 수입 증가율은 1.1%p 하락하여 1.2%를 기록함

〈그림 13〉 수출입 증가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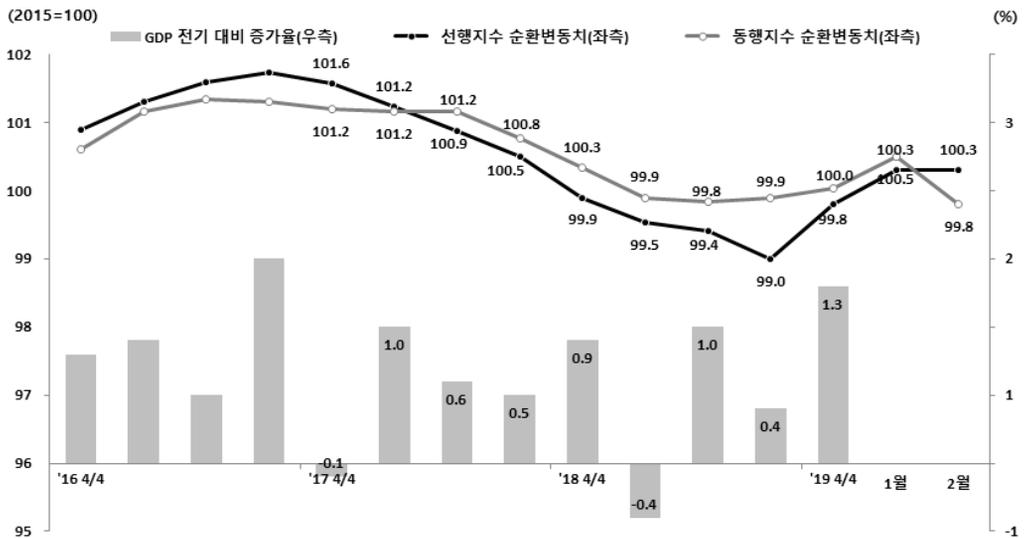


주: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
자료: 한국은행

8) 통계청 보도자료(2020. 1), “2019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”

- 2019년 4/4분기 경제성장률과 선행지수⁹⁾ 순환변동치 및 동행지수¹⁰⁾ 순환변동치는 동반 상승하였으나, 2020년 2월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크게 하락함
- 2019년 4/4분기 경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장단기 금리차, 기계류 내수출하지수 등이 증가하여¹¹⁾ 전분기보다 0.8 상승한 99.8을 기록함
- 2019년 4/4분기 경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수입액 등이 감소하였으나 소매판매액지수 및 서비스업생산지수 등이 증가하여¹²⁾ 전분기보다 0.1 상승한 100.0을 기록함
 - 2020년 2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건설기성액 및 비농림 어업 취업자 수가 증가 하였으나, 소매판매액지수 및 서비스업 생산지수 등의 감소로 전월 대비 0.5 하락한 99.8임

〈그림 14〉 GDP증가율과 순환변동치



주: 2019년 2/4분기, 7월과 8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잠정치임
 자료: 한국은행, 「국민소득」; 통계청, 「산업활동동향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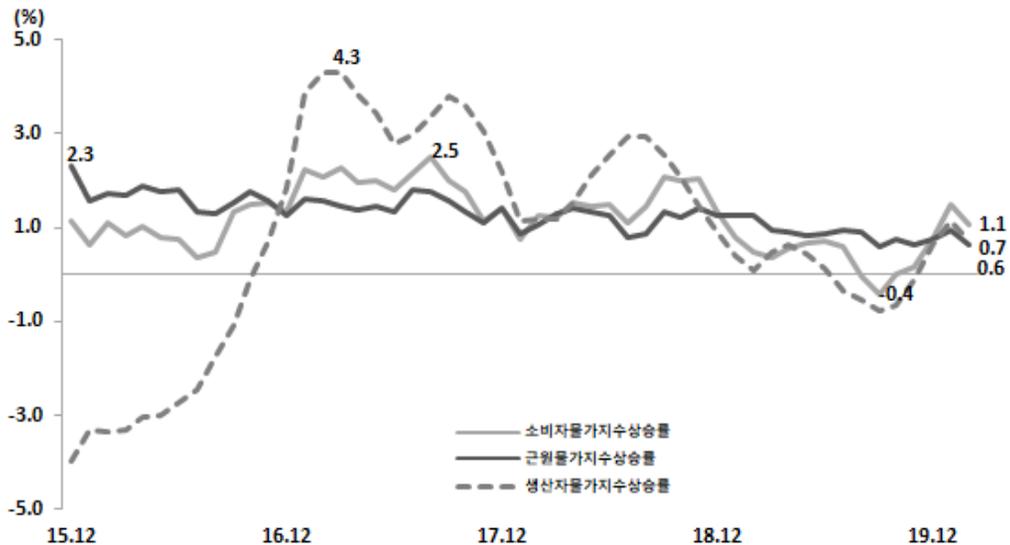
- 9) 선행지수는 재고순환지표, 소비자기대지수, 건설수주액, 기계류내수출하지수, 수출입물가비율, 구인구직비율, 코스피지수, 장단기금리차 등 8개 지표를 종합하여 작성함
- 10) 동행지수는 광공업생산지수, 서비스업생산지수, 건설기성액, 소매판매액지수, 내수출하지수, 수입액, 비농림 어업 취업자 수 등 7개 지표를 종합하여 작성함
- 11) 통계청 보도자료(2019. 12), “2019년 11월 산업활동동향”; 통계청 보도자료(2020. 1), “2019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”
- 12) 통계청 보도자료(2020. 1), “2019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”

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9년 9월 역대 최저치인 -0.4%를 기록하고 반등하였으나, 2020년 2월에 다시 하락함

○ 2020년 2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농축수산물 및 개인서비스 부문이 둔화되면서 전년 동월 대비 0.4%p 하락하여 1.1%를 기록함

- 특히 2020년 2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여행·외식 등이 감소하면서¹³⁾ 개인서비스 부문이 크게 감소함¹⁴⁾

〈그림 15〉 물가상승률



주: 1)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임
 2) 근원물가상승률은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물가지수 상승률임
 자료: 한국은행

■ 주요 기관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민간소비 및 수출 등이 위축되어 2020년 국내 경제성장률이 2019년 경제성장률에 비해 낮아질 것으로 전망함

○ 예산정책처는 2020년 초 발생한 코로나19로 경제활동 및 소비자심리가 크게 위축되어 2020년 경제성장률을 2019년에 비해 낮은 1.6%로 전망함

○ 주요 해외투자은행¹⁵⁾의 2020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최저 0.3%에서 최고 1.5%로, 평균 0.9%로 전망함

13) 해외단체여행: -6.4%(’20. 1) → -12.2%(’20. 2), 외식: -1.8%(’20. 1) → -2.1%(’20. 2)

14) 기획재정부(2020. 3), 「최근경제동향」

15) 8개 IB(Barclays, BoA Citi, Credit Suisse, Goldman Sachs, J.P. Morgan, Nomura, UBS), 2020년 3월 말 기준임

2. 금융

가. 금리

■ 한국은행은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 둔화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의 영향으로 3월 17일 기준금리를 1.25%에서 0.75%로 인하함¹⁶⁾

- 지난 2월 금융통화위원회는 코로나19의 향후 전개양상이 불확실하지만 1/4분기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으며, 2/4분기 이후 국내외 금융·경제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에 기준금리를 동결한 바 있음¹⁷⁾
- 그러나 3월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실물경제에 대한 하방리스크에 대응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 완화를 위해 기준금리 인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함¹⁸⁾
- 이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019년 7월과 10월 두 차례에 이어 0.5%p 추가 인하하였으며,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가 0%대에 진입함

■ 미국 등 주요국의 중앙은행도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심화로 금리 인하와 대규모 경기 부양책 마련 등 양적 완화기조를 확대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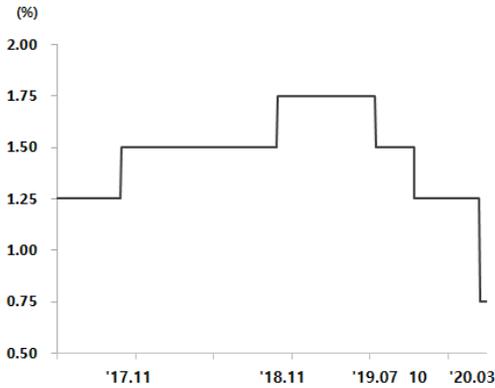
- 미국의 기준금리는 3월 4일 0.5%p, 15일 1.0%p 두 차례의 인하로 금융위기 이후 12년 만에 제로금리(0.00~0.25%) 수준에 진입하였으며, 정부는 약 2조 달러 규모의 가계·기업을 위한 대규모 예산을 편성함
- 영국도 3월에 기준금리를 0.25%에서 0.1%로 두 차례(0.5%p, 0.15%p) 인하하였으며, 7,100억 파운드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마련함
- 이 외에도 캐나다 0.25%(0.5%p), 호주 0.25%(0.25%p)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유럽연합 국가들의 재정 확대 정책이 이어지고 있음

16) 한국은행 보도자료(2020. 3. 16), “기준금리 0.5%p 인하 등 경제·금융 안정화 조치 실시”

17) 한국은행(2020. 3. 17), 「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(2020년도 제4차)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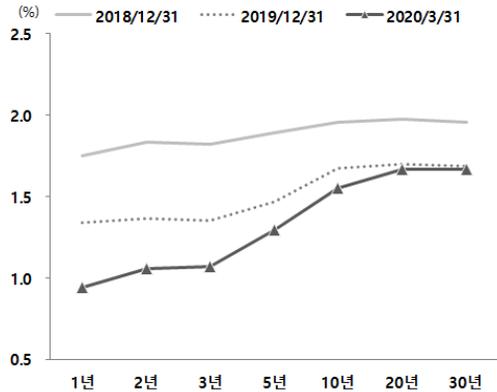
18) 한국은행(2020. 3. 31), 「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(2020년도 제6차)」

〈그림 16〉 기준금리



자료: Bloomberg

〈그림 17〉 국채 수익률 곡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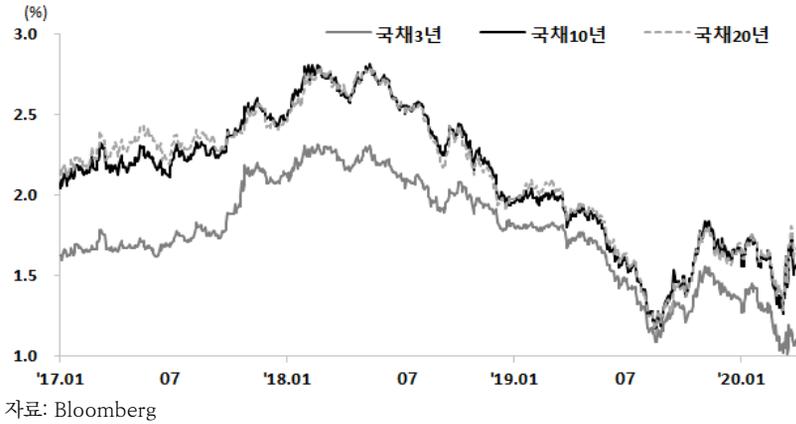
자료: Bloomberg

■ 코로나19 장기화 우려에 따른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미국 등 주요국의 기준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안전자산인 국채금리는 하락세를 보임

- 1월 국채금리는 미·중 무역협상 진전,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 약화, 정부의 예산 확대 편성에 따른 국채 발행규모 증가로 장단기물 모두 소폭 상승함
- 그러나 이후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경기 둔화 우려가 심화되고 기준금리 인하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강화되어 국채금리는 하락세로 전환함
 - 코로나19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2월 소비자 심리지수(104→74)와 기업경기 실사지수(75→65)는 메르스 사태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함¹⁹⁾
- 3년물 국채 금리는 기준금리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하락하였고 10년물 국채 금리는 1.3%대까지 하락함

19) 하나금융경영연구소(2020. 3. 21), 「금리: 금통위, 금리 인하보다는 미시 대응에 주력」, 『하나금융포커스』, 제10권 5호

〈그림 18〉 국채 금리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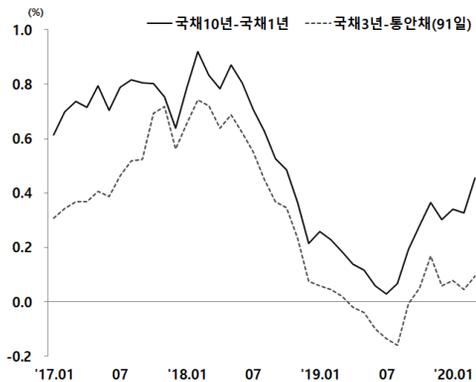
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, 정부의 경기 부양책으로 인한 채권 발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장기물이 단기물에 비해 약세를 보이며, 장단기 스프레드와 신용스프레드가 확대됨

○ 장단기 스프레드(10년물-1년물)는 1월 초 26.5bp에서 3월 말 81.6bp로 3배 이상 확대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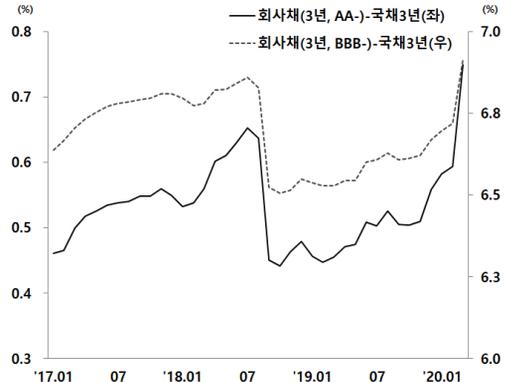
- 통상 장단기 스프레드 확대는 경기 확장의 선행지표로 여겨지나 최근의 확대 현상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적자국채 발행 증가로 인한 수급 불안 우려로 장기물 금리가 상승한 것에 기인함

○ 또한 신용평가사들의 기업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이어지고 있으며, 3월 신용스프레드(회사채 AA⁻국채 3년물)는 75bp까지 확대되어 2012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

〈그림 19〉 장단기 스프레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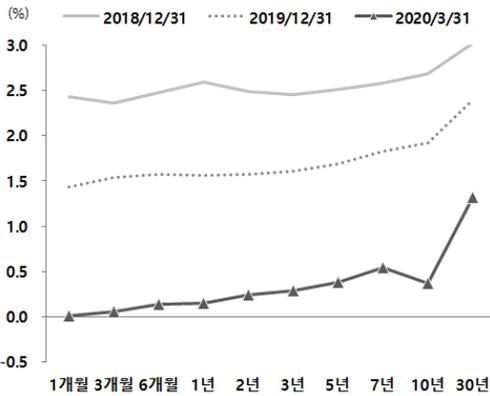
〈그림 20〉 신용스프레드



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글로벌 채권금리가 하락하는 가운데, 미국 국채 장단기 스프레드는 지난 경제위기 때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였고 우리나라와의 금리차는 확대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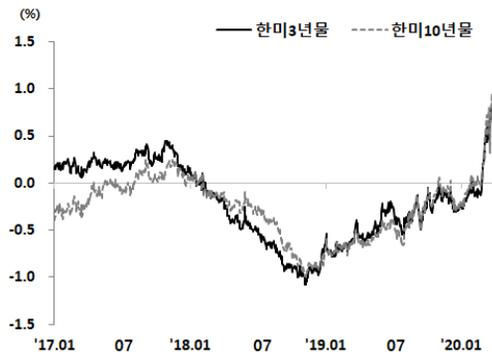
- 1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 가결, 중동지역 불안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지속되어 등락을 반복함
- 하지만 코로나19 감염자가 중국 외 지역에서 급증함에 따라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미 질병통제예방센터(CDC)와 식품의약국(FDA) 경고에 따른 투자자 불안 심리가 확대되어 장기물 금리가 사상 최저치로 하락함
- 3월 미국 국채 장단기 스프레드(10년물-2년물)는 0.117%p까지 축소되었으며, 이는 동아시아 외환위기(0.247%p), 글로벌 금융위기(1.921%p)²⁰때 보다 낮은 수준임

〈그림 21〉 미국 국채 수익률 곡선



자료: Bloomberg

〈그림 22〉 한국과 미국 금리차(3년, 10년)



자료: Bloomberg

■ 해외 투자은행들은 '20년 2분기 금리 전망치를 지난 12월 전망치에 비해 대폭 하향 조정함

- 2020년 2분기 미국 국채(10년) 금리는 0.73%, 국내 국채 10년물과 3년물 금리는 각각 1.39%, 1.16%로, 지난 분기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

20) 현대경제연구원(2020. 3. 20), 「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비교」

〈표 1〉 주요 해외 투자은행 금리 전망 평균

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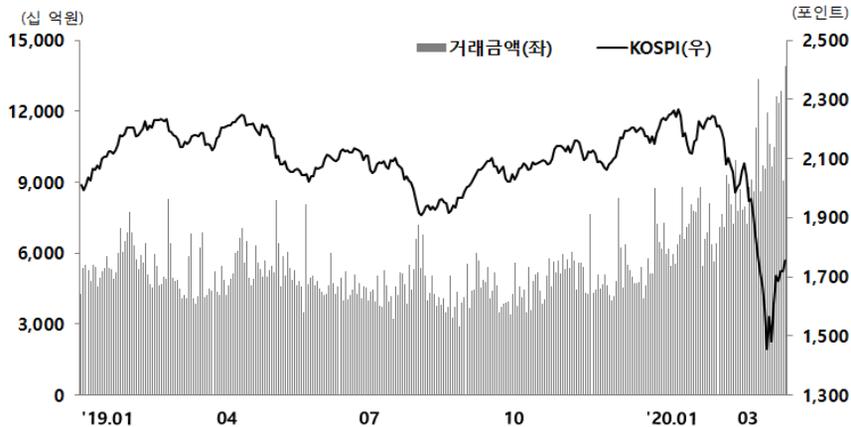
미국 국채(10년) 금리			국내 국채(10년) 금리			국내 국채(3년) 금리		
'20. 2Q	3Q	4Q	'20. 2Q	3Q	4Q	'20. 2Q	3Q	4Q
0.73	0.94	1.1	1.39	1.46	1.56	1.16	1.26	1.3

주: 2020년에 대한 투자은행의 블룸버그 가중평균 값으로, 예측 시점은 3월 기준임
 자료: 한국은행; Bloomberg

나. 주가

- 코스피(KOSPI)는 1월 말까지 회복세를 이어가다 코로나19 확산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1,400선까지 하락하여 2009년 이후 10년 만에 1,500선이 붕괴됨
- 3월 11일 WHO의 코로나19에 대한 전염병 경보 단계 중 최고 수준(6단계)인 팬데믹 선언으로 주요국의 주식시장 불안과 글로벌 금융시장의 침체로 이어짐
- 코스피는 팬데믹 선언 이후 다음날 전일 대비 23.5% 하락하였으며, 이후 1,439~1,897 포인트 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하다 3월 말 1,700선에서 마감함

〈그림 23〉 주가지수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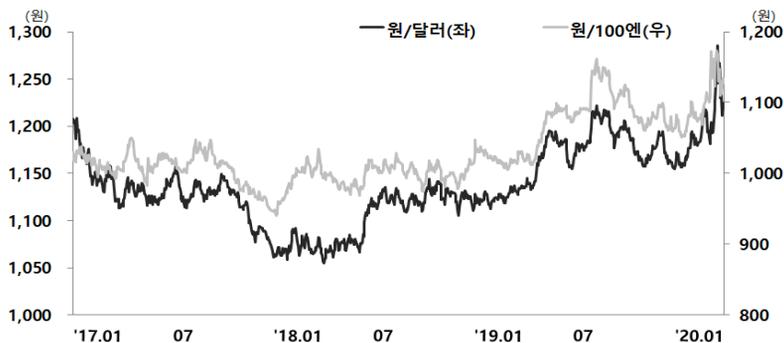
자료: 한국거래소

다. 환율

- 원/달러 환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외화 유동성 우려로 급격히 상승하였으나, 국내 외환당국의 시장 안정화 조치로 안정을 되찾으며 1,200원대에서 등락을 반복함
 - 1월 원/달러 환율은 미·중 무역합의 서명과 미국 경제지표 개선 등의 영향으로 달러 강세를 보이며, 1,150원대로 하락함
 - 그러나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과 WHO의 팬데믹 선언 이후 원/달러 환율은 급격히 상승세로 전환되어 1,285원까지 상승함
 - 3월 11일 600억 달러 규모의 한·미 통화스왑 체결로 인해 원/달러 환율은 달러 유동성 우려가 진정되며 1,200원대 초반으로 하락함
 - 한·미 통화스왑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300억 달러 규모, 6개월 기한으로 체결한데 이어 두 번째이며, 이번 계약 규모는 600억 달러, 계약기간은 최소 6개월임

-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로 엔화는 강세를 보였으나 지난 4/4분기 일본의 역성장, 도쿄올림픽 취소 가능성 등 약세 압력으로 인해 원/엔 환율은 100엔 당 1,100원대를 기록함
 - 일본은 2019년 4/4분기 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-1.6%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며, 코로나19 확산으로 도쿄올림픽이 취소되면서 엔화 약세 압력을 받음
 - 1,2월 원/엔 환율은 100엔 당 1,050원을 하단으로 등락을 반복하였으나 3월 코로나19의 팬데믹 선언으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이어져 1,100원대로 상승함

〈그림 24〉 원/달러 및 원/엔 환율 추이



자료: Bloomberg

■ 주요 해외 투자은행들은 '20년 2분기에 원/달러와 엔/달러 환율은 하락, 달러/유로 환율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

○ 코로나19의 장기화 우려 및 경제 충격이 실물 지표로 가시화되면서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이어지고 있으나 미 연준의 강한 통화 완화정책이 달러화 약세를 견인할 것으로 보임

〈표 2〉 주요 해외 투자은행 환율 전망

(단위: 원, 엔, 달러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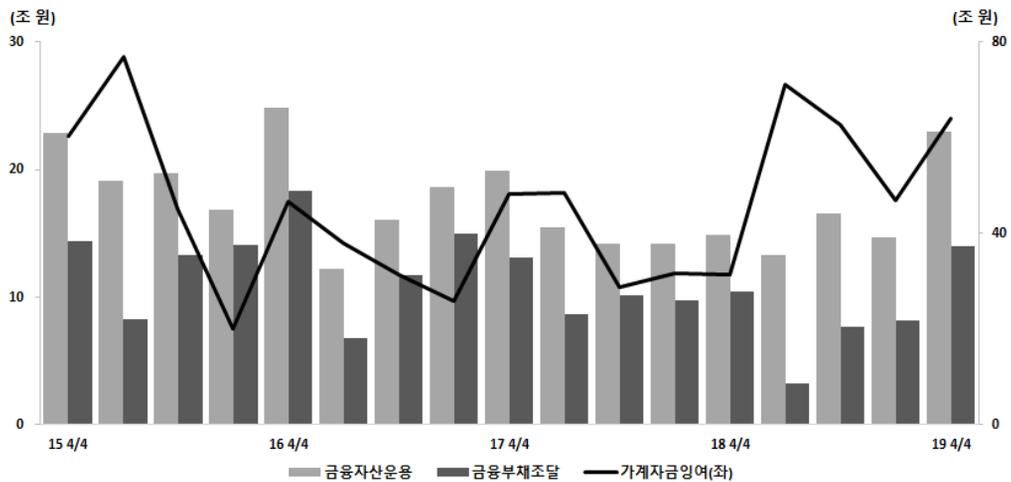
구분	원/달러		엔/달러		달러/유로	
	'20. 1Q	2Q	'20. 1Q	2Q	'20. 1Q	2Q
Standard Chartered	1,219	1,190	109	102	1.09	1.11
JP Morgan Chase		1,170		107		1.11
Barclays		1,190		108		1.09
BNP Paribas		1,185		108		1.12
Morgan Stanley		1,130		107		1.18

주: 2020년 2분기에 대한 투자은행의 블룸버그 가중평균 값으로, 예측 시점은 3월 말 기준임
자료: 한국은행; Bloomberg

3. 자금흐름

- 2019년 4/4분기 가계부문²¹⁾의 자금잉여²²⁾는 반등하여 상반기 수준으로 회복함
- 2019년 4/4분기 가계부문의 금융자산 운용은 61.4조 원, 금융부채 조달은 37.4조 원으로 24.0조 원의 자금잉여가 발생함

〈그림 25〉 가계자금잉여



자료: 한국은행

- 2019년 가계부문의 채권과 국내주식 거래는 감소한 반면 현금 및 예금 거래는 확대됨
- 보험 및 연금 거래 비중은 2012년 79.7%로 최근 10년 내 최고점을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9년 38.8%를 기록함

21) 가계(소규모 개인사업자 포함) 및 가계에 봉사하는 민간비영리단체를 의미함

22) 가계자금잉여는 가계부문이 일정기간 동안 운용한 금융자산 규모에서 조달한 금융부채 규모를 차감한 금액이며, 이는 가계부문이 금융산업에 순공급한 자금을 의미함

〈표 3〉 가계금융상품거래

(단위: 조 원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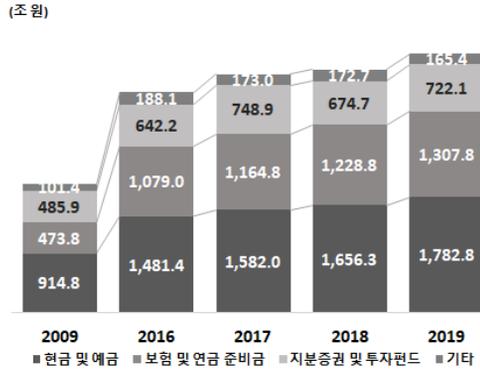
구분	현금 및 예금	보험 및 연금		채권	거주자 발행주식 및 지분	비거주자 발행주식	투자펀드	기타	합계
2009	86.4	53.8	(37.1)	16.1	9.7	-2.2	-18.7	-0.1	145.0
2010	95.3	65.9	(44.7)	11.1	5.9	-0.2	-30.0	-0.6	147.4
2011	70.9	72.3	(45.6)	11.1	7.9	-0.3	-5.9	2.5	158.5
2012	36.9	99.0	(79.7)	10.5	-6.1	-0.4	-14.2	-1.5	124.2
2013	60.6	91.2	(60.5)	6.1	0.7	-0.3	-7.3	-0.2	150.7
2014	76.0	90.5	(53.2)	4.0	-0.8	0.8	-3.5	3.1	170.0
2015	107.9	89.8	(40.3)	4.7	5.3	1.7	9.5	4.1	223.0
2016	118.3	87.7	(41.0)	-0.9	9.9	0.1	-2.6	1.2	213.7
2017	101.2	83.3	(47.7)	-11.8	0.0	1.1	-3.9	4.7	174.6
2018	74.3	61.4	(40.3)	0.1	17.0	1.8	0.0	-2.1	152.4
2019	129.0	69.8	(38.8)	-17.3	-7.8	2.1	2.0	2.3	180.1
1/4	38.4	13.9	(39.3)	-8.8	-4.9	0.3	1.8	-5.3	35.4
2/4	25.7	14.0	(31.7)	-1.7	-1.2	0.6	4.6	2.1	44.1
3/4	28.1	10.1	(25.7)	0.7	0.5	0.6	-1.2	0.4	39.3
4/4	36.8	31.8	(51.8)	-7.5	-2.1	0.5	-3.3	5.2	61.4

주: 괄호 안은 전체 거래금액 중 차지하는 비중임
 자료: 한국은행, 통계청

■ 2019년 4/4분기 가계 금융자산 중 보험 및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2.9%로 2018년과 같은 수준을 기록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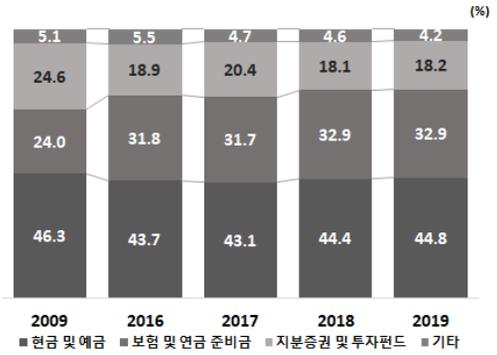
○ 가계 자산 중 현금 및 예금의 비중은 2017년부터 상승하여 2019년 44.8%를 기록함

〈그림 26〉 가계금융자산 구성(금액)



자료: 한국은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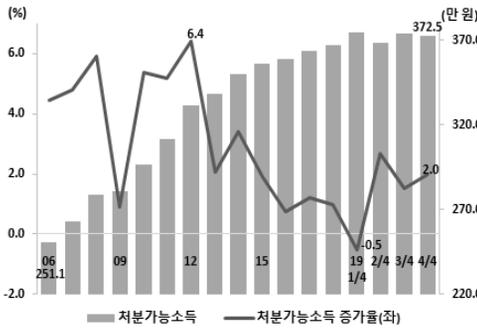
〈그림 27〉 가계금융자산 구성(비중)



자료: 한국은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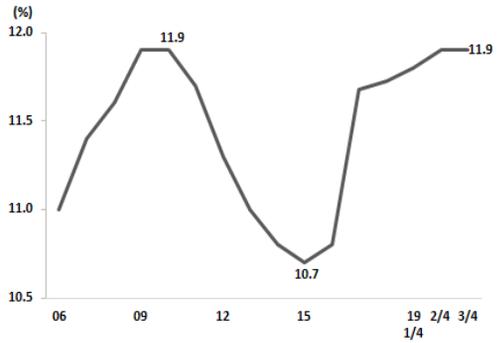
- 2012년 최고치를 기록한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2019년 1/4분기 -0.5%로 최저점을 기록한 후, 반등하여 4/4분기 2.0%를 기록함
- 가계의 부채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(DSR)은 2019년 3/4분기 11.9%를 기록하며 전분기와 같은 수준을 기록함

〈그림 28〉 명목 처분가능소득



주: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임
자료: 통계청

〈그림 29〉 DSR



자료: BIS

4. 규제·제도

■ 소비자 중심의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개선(2020. 3. 25 금융위원회)

- 일반인 대상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에 특별약관도 포함하고, 일반인 평가 비중을 확대하는 등 보험소비자의 시각으로 보험약관을 쉽고 명확하게 개선함

■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「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」 마련(2020. 3. 19 금융위원회)

-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과 국토교통부 손명수 차관은 3월 19일 「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」를 개최하여 불합리한 보험료 및 보험금 산정기준 개선, 자동차보험 보장 사각지대 해소, 책임성 강화를 통한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보험료 인하 유도 방안 등을 논의함

■ 금융회사 빅데이터 활용 업무 확대(2020. 2. 6 금융감독원)

- 금융회사의 데이터 분석·컨설팅·유통 등 빅데이터 업무를 허용하고, 빅데이터 활용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함

■ 공동재보험(Coinsurance) 도입방안 논의(2020. 1. 30 금융위원회)

-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은 1월 30일 「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」을 개최하고 보험회사 보험부채 구조조정방안으로서 공동재보험 도입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등 관련규정 개정에 대해 논의함

■ 2019년 법인보험대리점(GA) 영업전반에 대한 검사(2020. 1. 22 금융감독원)

- 금융감독원은 불건전영업 근절을 위한 법인보험대리점(GA) 영업전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고, 그 결과 대형 GA는 기형적인 조직구조로 내부통제가 매우 취약하여 위규가 반복 발생하는 등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제재하고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자 함

■ 「보험업감독규정」 개정(2020. 1. 15 금융위원회)

- 보험상품의 해약공제액 및 사업비 관련 불합리한 부분 및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시키는 요인을 개선시키고, 모집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지급기준을 명확화함

■ 숨은보험금 찾아드림 캠페인(2020. 1. 13 금융위원회)

- 「숨은보험금 찾아드림 캠페인」으로 2018년 12월에서 2019년 11월 기준, 약 2조 8천억 원의 숨은보험금을 찾아 안내하였고 2019년 11월 말 현재 약 10조 7천억 원의 숨은보험금이 남아있으며, 이는 「숨은보험금 찾아드림 캠페인」으로 우편 또는 콜센터를 통해 안내할 예정임